불교 최상의 해 발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正等覺無畏 漏永盡無畏(정등각무외 누영진무외)
設障法無畏 說出道無畏(설장법무외 설출도무외)
새해는 전 세계 67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자리에 모여 세계불교 위상을 논하는 회의가 준비되어가고 있어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불교 최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어두운 외길을 지나 이제 드넓은 대지위에서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으로 끊임없이 싸워 이겨가야만 되는 숙명을 안고 중생계에 머무는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에 축복하고 기뻐하며 기려야 할 만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국태민안 가화만사성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마음이 청정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푸르고 한강물 유유히 흐른다. 국태민안하고 가화만사성이라. 국가는 성장하고 국민은 행복하니 대한민국이 극락이로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전자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시대를 가름하지 못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플러그인을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복덕이 구족한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새아침 새로운 희망이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새해의 찬란한 태양은 우리 뭇 중생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고 동녘 하늘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불타오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에 힘찬 기운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해야 합니다. 집착이 끊어진 그 자리가 해탈이요, 시시비비 끊어진 그 자리, 다툼의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가 화쟁의 세계요,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세계의 평화입니다. 세상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복전(福田)을 일궈 나갑시다.

대자대비 유연중생 제도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 남정



天月普照先照高山(천월보조선조고산)
佛慈廣大先濟有緣(불자광대선제유연)
感德道交如燈水月(감응도교여등수월)
一切水月一月總攝(일절수월일월총섭)

하늘의 밝은 달 높은 산봉우리 비추이고 부처님 대자대비 유연중생 제도하네. 천강에 비친 달, 하나에 깨어나니 중생이 절로 감탄하며 제불이 응하도다.

본성진아를 찾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본성진아뿐이건만 오욕락에 끄달린 중생에게는 구름에 가리운 달과 같아서 생과 사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 세월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업을 맑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자기 자신부터 본성으로 돌아가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아 사람답게 사는, 참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구화무쟁으로 선업을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산수



一言不中 千語無用(일언부중 천어무용)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무슨 소용 있으리. 우리 주변에는 말 한마디 잘하여 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여 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 것도 그만큼 말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비유한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밝아온 기해년에는 六和敬行(육화경행)의 口和無諍(구화무쟁)을 실천하여 선업을 쌓으시길.

애착 버리고 자유를 찾아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일



청정한 마음을 이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정진하자. 기해년에 우리영욕(榮辱)에 물든 세속의 감정으로 모든 이들을 더럽히지 않으며 겉모양의 실상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 애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모든 이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기해년 한 해가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만 중생 은혜에 보답을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생사애욕단절(生死愛慾斷切)
번뇌고해초월(煩惱苦海超越)
불도천생은혜(佛道千生恩惠)
보은사장시주(報恩師長施主)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욕심과 집착을 끊어서 모든 번뇌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져.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나라님, 스승님, 시주하신 모든 분께 은혜에 보답합시다.
나라님은 국민경제와 안전에 힘써주시고 온 국민은 용기와 희망을 일으키시고 불교계 고승대덕 큰스님과 출가재가 불자들은 불국 중흥을 위하여 수행하며 포교하는 새해가 되시고 복덕구족 하십시오.

업의 허물을 벗어내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원각



기해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척박한 사바세계에 인연 따라 태어나 궂은 비 모진 바람 양식 삼아 살아온 인생, 이제 그만 정리하고 부처님의 간절하신 보살핌을 받아 업(業)의 허물 벗고자 힘쓰겠습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2018(무술)년도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흘러간 세월만큼 쌓이는 회포인데, 그림자처럼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새해에는 세상만사가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이슬과 같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 바로 새겨,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기관에 속지 말고 본래 마음 성품을 찾아야겠습니다.

분별없는 자비심의 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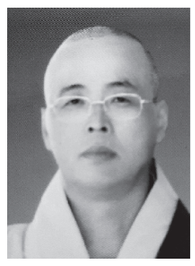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태양은 분별없이 모든 곳을 비추어 줍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악은 다분히 감정위주의 분별심이 작용하는 데서 올 뿐입니다. 즉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은 대부분 아전인수 격인 독선과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불성을 찾지 않고 상대성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태양과 같이 분별하지 않는 자비심을 널리 펼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자기본분 최선 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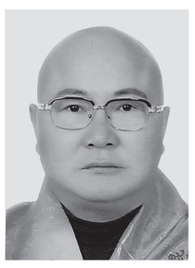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자대비가 지금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해법임을 알아서 선악을 구분 짓지 말고 자비로운 생활을 합시다. 이처럼 생활해 나간다면 '자비무적' 이라 어디 누가 있어 적이 될까요. 적이 있을까요.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인 도리를 부처님께서 설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어려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는 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해의 원년이 되어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 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나도다. 구름이 갔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 간 자취도 없도다. 묵은해는 가고 새해 오니,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흐르는 물 돌아오지 않는다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비워라 비워라 비우지도 못하고 버려라 버려라 버리지도 못하고 또 한 해의 달력을 만들었네. 모든 것들은 무상(無常)하거늘 항상(恒常)하다고 착각 하지마라.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다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幸福)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不幸)한 것을. 지지배배 꿍얼꿍얼 남 탓 하지 말고 돼지해 복(福)돼지 만들려 거든 어리석은 탐욕(貪慾)을 걷어내고 지난 그릇된 일들 참회하면서 베풀어 덕(德)을 쌓세. 수리수리 마음수리(修理) 수수리(修修理) 사바하. 나무아미타불.

새해 맞고 묵은해 보내며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날과 날이 그냥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새해니 묵은해니 합니다.
매일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인데. 서로를 둘러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항시 자기를 낮추고 온화한 미소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집과 이기심을 비우고 참회를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나투시고 중생들은 비로소 행복과 안위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집집마다의 부처님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참다운 불공을 합시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다운 불공(佛供)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다운 불공입니다. 이리가도 부처님, 저리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리.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미래겁(未來劫)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불보살의 큰 서원이며 참다운 불공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실상 바로 보자

(재)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법수



세월이 흘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분 이듯이 자연스러움이 넘쳐나면 삼독이 저절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밝은 눈으로 생명의 실상을 바로 봅시다.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업을 닦고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항상 기원 드립니다.

공동의 기도 원력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또 다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드리운 명운은 IMF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불교의 부침마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벽에서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올해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의 기도를 통해 원력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라 위에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법화종도들도 현재의 어려운 나라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국운이 융성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길 다함께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참 마음 불성을 찾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복되소서. 사람들은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기해년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새해를 열어 갑시다.

자정기의를 실천하자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만원



자정기의를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을 하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은 자기자신을 일깨우고 발견하는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돌아가자. 자정기의란 바로 원(願)을 성취시켜주는 행(行)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고 그것은 실로 설산(雪山)의 침묵과 장광설과 무정설법인 것이다.